

북스

아홉가지 키워드로 풀어 본 인간·세계·현실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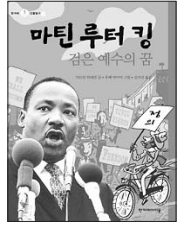
▲곤충곤충 곤충친구를 만나요=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일하는 곤충 전문가 김태우씨가 곤충들의 먹이와 살아남기 위한 곤충들의 특별한 방법, 곤충의 집과 짝짓기 등 곤충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한다. 3000여 종이 넘는 곤충들을 다뤘으며, 작가가 직접 찾아다니며 촬영한 곤충의 생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웅진주니어·9500원>



▲한 줄의 반성문=부산 출신 유태우씨가 아동일보보호소에 찾아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이다. '아동일보보호소'에 맡겨진 뇌성마비와 앓고 있는 설중이에게 달란이는 햄스터 달이와 별이를 맡긴다. 하지만 설중이는 달이와 별이를 잃어버리고, 설중이의 책임이라는 소리를 지르는 달찬이... <시공주니어·8500원>



▲명랑아빠=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을 소재로 창작한 이진영씨의 가족동화. 엄마 몰래 고양이를 키우면서 입양한 동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오빠의 이야기, 고사목 친구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고 싶은 딱따구리의 소망, 명랑함이 주특기인 아빠가 명랑하게 살게 된 이유 등 일곱 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예림당·8000원>



▲마틴 루터 킹-김은 예수의 꿈=흑인 인권 운동을 펼친 마틴 루터 킹 목사 이야기를 담았다.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비롯해 흑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따뜻한 운동들을 펼쳐내는 과정을 충실하게 다뤘다. 김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들춰내는 등 몇몇가지 못한 모습까지 다루고 있다. <한겨레아이들·1만원>



▲우리 땅 독도를 지킨 안홍복=일본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확인 문서를 받아 왔으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모든 분쟁을 끝낸 조선시대 인물 안홍복 이야기. 광범한 어부였지만 배짱과 기개로 나라를 위해 강직하고 거위 그들의 간사한 마음을 꺾고 우리 땅을 지켜낸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뤘다. <신수아·1만원>



▲장애를 넘어 인류애에 이른 헬렌 켈러=시각·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운동에 앞장선 여성의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가 장애인에게 희망을 준 인물일 뿐만 아니라 차별받는 유색인종의 친구이자 그들을 대변하는 사회 개혁가였다는 것. 그동안 사람들이 잘 몰랐던 그의 모습을 조명했다. <창비·1만2000원>



▲우리 정말 친한 단짝 친구=그린이웨이 상을 수상한 로렌 차일드의 컬러와 플라 그림책. 어찌까지만해도 단짝 친구였던 플라와 로라는 새로운 친구 예비가 나타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플라와 로라가 다시 단짝이 되는 과정을 통해 친구와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국민서관·9500원>

▲재일동포 리정애의 서울 체류기=실존인물인 재일조선인 리정애 씨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렸다. 조선 국적을 갖고 있는 재일동포 리정애씨가 국어를 배우러 서울에 와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그림책·만화작가 임소희 씨가 리정애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그린 만화다. <보리·1만1000원>

세상을 밝히는 지식교양 시리즈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



지식과 교양, 두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인지 그것들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단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성 차별'은 없어야 한다'처럼 일상에서 접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책 '세상을 밝히는 지식교양' 시리즈(전 3권)를 출간했다. 2권 '세계를 바꾼 아홉 가지 단어'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꾼 것들은 무엇일

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시리즈는 '인간', '세계', '현실'이라는 3가지 큰 주제를 정하고 주제 하나당 다시 9개의 단어를 뽑아 총 27개의 키워드로 엮었다. 우선 1권 '인간을 이해하는 아홉 가지 단어'는 인문학의 핵심 주제인 '인간이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했다. 우리가 외면하는 소수자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가족 속의 나, 기술사회의 자아, 이기적 혹은 이타적인 인간의 분상, 욕망, 역사 속의 개인,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 인간의 사이보그화 등의 문제를 쫓아보며 '인간'이란 존재의 비밀을 풀어간다. 소수자, 인정, 가족, 기술, 이기주의 등 아홉 개의 키워드는 20세기 내내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오고, 인간 존재를 변화시켜 온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 책은 세상의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에서부터 미래의 사이보그까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쏟아낸다. 2권 '세계를 바꾼 아홉 가지 단어'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꾼 것들은 무엇일

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권력, 진보, 민족, 전통, 소비, 합리성, 오리엔탈리즘, 환경, 문명과 같은 것들이다. 책은 이 아홉 개의 키워드를 하나하나 파져 들어가며, 나와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다. 마키아벨리가 바라보는 권력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민족주의, 근대화, 이미지, 합리성,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 기후변화 문제, 광화문의 촛불시위, 뉴라이트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이후 우리의 세계를 바꾼 사건들과 문제들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실체를 규명한다. 저자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아홉 가지 단어는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키워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진실로 현실을 지배하는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답한다. 저자들은 우리의 현실을 한마디로 자본주의사회라고 칭한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 자본주의 체제와 관련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둘러싼 아홉 가지 키워드-빈곤, 소유, 기업, 분배, 정보, 공동체주의, 저출산 고령화, 노동, 신자유주의-를 통해 자본주의를 움직



2006년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FTA 반대 시위.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한다. <동북출판사 제공>

이는 것들의 실체를 들여다 본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읽고 나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가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책은 각각 별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삶과 사회 그리고 인종과 세계사에서 이념과 총체적 지식교양 네트워크를 모색한다.

각 권의 주제와 그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읽어가면서 말로만 들어왔던 위대한 고전을 엿보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 그 현장에서 주제와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펼쳐지는 사회·철학자들간의 '가상토론'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하다. <동북·각권 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비참해진 인간에 대한 분노·증오

어떤 선물은 피를 요구한다

최치연 지음

"좌측은 연필의 힘을 믿는다 / 나무의 치졸함을 믿고 / 의사당의 순결을 믿는다 / 좌측은 형제들의 오만을 믿는다 / 그러므로 좌측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 우리가 늙는다는 것도 / 너희들이 여자이었다가 남자가 되고 그리고 여자도 사랑하는 나약한 방식을 믿는다 / 귀를 도려내라 <어떤 선물은 피를 요구한다> 중"

지난해 '인니들'로 대한민국극대상 희곡상을 받은 극작가이자 시인인 영암출신 작가 최치연(40)씨가 두 번째 시집 '어떤 선물은 피를 요구한다'를 출간했다. 최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피, 죽음, 향문, 지옥 등 어둡고 강렬한 이미지의 시어를 바탕으로 인간이 잔혹하게 파괴되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증오, 슬픔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특히 최 시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감과 한 편의 부조리를 연상하게 하는 독특한 구성, 장르의 경계를 해체하는 시적 상상-구조를 통해 누구나 불명료한 세계라 치부해 버리는 우리 세계의 어두운 단면을 표현하고 있다. 최 시인은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2001년 세계일보에 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시집 '달항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와 시화집 '레몬트리' 등을 집필했다. <문학과학서사·7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이리버' 양덕준의 성공과 좌절

거인과 싸우는 법

이기형 지음

최초로 디자인 경영을 전자제품에 도입해 전 세계에 아이리버 마니아를 만들어낸 벤처기업 레인콤. 미국에 진출한 지 6개월 만에 미국시장 점유율 1위, 설립 4년 만에 국내시장 점유율 70%, 세계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한 아이리버 이야기는 전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의 신화가 됐다. 그러나 아이리버의 신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쓰러졌다. 삼성, LG도 넘지 못했던 높은 벽, 소니를 이기고 세계시장을 단숨에 석권했지만 애플에게는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기자 출신 이기형씨가 쓴 '거인과 싸우는 법'은 창업자 양덕준 대표를 비롯한 창립멤버들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리버'가 히트를 치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성공의 원동력과 애플과의 전면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등을 되짚어본다. 책은 '아이리버'의 탄생과정과 벤처기업의 성공과 좌절은 물론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양덕준 대표에게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저자는 양 대표가 그와 함께 일한 동료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았던 진정한 리더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와 일하고, 그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지 묻는다. 책은 또 병상에 있는 지금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양 대표의 끝까지 않은 꿈 이야기도 함께 소개했다. <링커스·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모성에 대한 진한 그리움·애증들

과테말라의 염소들

김애현 지음

지난 2006년 '신춘문예 삼관왕'의 타이틀을 얻으며 등단한 김애현(45)씨의 첫 장편소설 '과테말라의 염소들'이 출간됐다. 이십대 여성인 주인공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다크컴퓨터 작가인 엄마와의 추억을 더듬으며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다. 엄마는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내고 홀로 '나'를 키웠다. 나는 바쁜 삶으로 자신을 자상히 돌볼 겨를이 없는 엄마에게 투정부리고 고리태극하며 자랐다. 엄마의 사고 후, 엄마가 나도 모르게 내 삼년지기 친구들을 만나 힘을 줬던 이야기를 듣고 엄마와 깊은 관계였다는 전 생선이라는 남자도 만난다. 소설 중간마다 과테말라에서 염소짓을 파는 호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점은 이채롭다. 엄마가 다크컴퓨터 작업자 만났던 호세와 나는 모성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애증까지 담은 점이 많다. 식물인간이 된 엄마라는 가슴 아픈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엄마와 딸, 그리고 친구들은 마냥 우는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주인공의 기억 속에서 엄마는 당당한 신세대 엄마이고, '88만원 세대'인 딸과 친구들은 불안한 일상 속에서도 '짖따던 힘'을 내며 발달함을 잃지 않는다. 다양한 인물의 디테일한 심리묘사와 적체적소에서 터지는 작가 특유의 유머가 돋보인다. <은행나무·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GG경매 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364-8700 H.P 010-4608-3700. Includes tables for real estate listings in Gyeonggi-do.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금산공인중개사. Real estate listings for Sangmu and Geum-san areas.

대인동상일부동산. Real estate listings for Daedong area.

현대공인중개사. Real estate listings for Hyundai area.